

함평 상해 임정청사 재현



애국지사 발자취 오롯이

大韩民国临时政府



지난 2009년 개관한 임시정부청사 건물은 1920년대 상해 임정청사를 재현한 것으로 이곳에는 애국지사들의 항일투쟁사, 당대의 사회상과 생활상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일강 김철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오롯이 깃든 기념관. 지난 2003년 개관한 이곳에는 일강의 자료뿐 아니라 당시 애국지사들의 자료가 비치돼 있다.

선라도 1000年 인물 열전 <5> 함평 ①-독립운동가 김철 (1886~1934)

“작년을 돌아보면 참 감개무량하오. 나도 비재(非才)로 최초부터 제형배(諸兄輩) 동지로 더불어 독립운동의 획책의 말석에 참여하는 영광을 득하였거니와 과거 우리 동포의 충성되고 용감한 활동은 더 감사할 말이 없소. 다행히 우리 동포의 애국심과 단결력은 더욱 작열하고 임시정부의 기초와 각원의 화합도 더욱 공고하며 대정의 방침도 연말까지에 확립하였으니 금년부터는 전년에 배사(倍徙)한 대활동이 있을 줄 믿소. 그러나 정부반으로 어찌 하리오. 내외의 각단체와 국민이 일심일체가 되어 일일이라도 바라는 대사업을 성취하기에 역력(戮力)하기를 바라오.”(“신년의 감상”·1920년 1월 10일 독립신문)

위 글은 1920년 신년을 맞아 독립신문에 실린 교통총장대리 김철의 글이다. 34세 젊은 선각자의 독립을 향한 결의와 포부가 읽혀진다. 그럼에도 일강은 자신을 겸허히 낮춘다. “독립운동의 획책의 말석에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오로지 그의 꿈은 조국의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임정청사 건물 위로 겨울별이 비친다. 구봉 마을은 별을 받아 따사로운 기운이 감돈다. 여느 시골마을과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그러나 여느 마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그것은 서릿발처럼 차가운 명징하면서도 또렷한 것으로 추호의 흐트러짐 없는 일강의 정신일 터였다.

집착하건대 그 정신의 발현은 단심송(丹心松)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김철 선생)에게 누가 될까봐, 김씨 여인은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일제 헌병들은 수시로 집 주변에 숨어 감시했고 남편의 행방을 대라고 종용했

으며 더러는 차근차근대기도 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인은 소나무에 목을 매 자결한다. 눈이 부시게 푸른 소나무는 그곳에 서서 또 1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람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 임정청사(1926~1932) 건물을 들어선다. 상해 임정 당시의 건물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습은 100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1층은 회의실과 주방으로 구성돼 있다. 2층과 3층은 각각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된 곳으로 책상, 침대를 비롯한 소품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것들이다. 특히 3층에는 1920년대 상해 한인거주지 거리를 재현한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국내뿐 아니라 국의 독립운동가와 함평 출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

지난 2009년에 개관한 임정청사 건물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집약된 곳이다. 김철 선생의 발자취와 애국지사들의 항일투쟁사 나아가 당대의 사회상과 생활상이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시돼 있다.

임정청사 바로 옆 ‘김철기념관’도 기억해야 할 공간이다. 2003년에 개관한 이곳에는 김철 선생의 생애와 애국의 발자취가 오롯이 투영돼 있다. 신한청년당 조직, 손병희 선생 등과 3·1독립운동 협의, 임정 당시의 활동상, 윤봉길의사의 거사 결정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응결돼 있다. 한마디로 애국정신을 만드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함평의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장이기도 하다.

작금이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사회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누리는 자유와 행복,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일궈졌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모든 것을 내던졌던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열매들이다. 오늘 우리시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이름과 살아 숨쉬는 역사가 아닐지.

/글·사진=박성천기자 skypark@



김철기념관 전시실 모습.

회의실·숙소·소품·한인 거리 등 100여년 전 모습 그대로 인근에 김철 기념관, 윤봉길 의사 거사 등 항일역사 한눈에



일강의 부인 김씨가 목을 매 자결했던 단심송(丹心松).

“일강 할아버지 유지 받들어 의로운 정신 이어나갔으면”

김철 선생 양손자 김만선씨

“생가 터 인근에 임시정부청사를 재현한 것은 일강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김구 내각 당시 상해 임시정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천석꾼 재산을 독립을 위해 희사했던 할아버지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요.”

일강 선생 양손자 김만선(67) 씨는 김철 선생의 사진을 가리키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김 씨는 재현된 청사 건물과 기념관, 추모관, 수양관의 관리와 함께 있다. 청사 건물 왼쪽 뒤편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며 건물과 시설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할아버지의 고귀한 정신을 선양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씨는 임정청사 건물을 비롯해 기념관, 추모관 등을 직접 설명해주었다. 그가 일강 선생의 양손자가 된 것은 아버지(김오근)가 양자로 입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김 씨는 “일강 할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이 일본의 감시와 괴롭힘에 못이겨 단심송에서 자결을 한 이후 한동안 독신으로 지냈다. 그러다 두 번째 부인을 만나 자식들을 낳았는데 딸만 들어왔다. 일강 할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종친회에서는 그분의 대를 이어 후사(아들)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연유로 저의 아버지가 양자로 입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나 가풍에 따르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선조의 고귀한 뜻을 후손들에게 심어주려는 집안의 결정과 이를 기꺼이 따랐던 김 씨와 그의 부친의 겸손한 자세도 정승받을 만 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펼쳤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김철’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있지 않다. 김구, 윤봉길, 손병희 등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당시에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에 비해 일강 할아버지는 해방 11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임시정부청사가 건립된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점차 일강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김 씨는 할아버지 영향으로 함평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일강에 대한 신망도 높았다는 방증이다.

그는 “봄, 가을 수학여행 철에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 나라사랑의 참 뜻을 되새긴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받들고 의로운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